

'훈민정음' 이후 첫 한글활자본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석가모니 생애 기려

앞서 《동국정운》을 말하면서 언뜻 고딕체의 한글활자 얘기를 비쳤지만,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맨 처음 한글활자로 찍은 책은 《석보상절》(보물 523호)과 《월인천강지곡》(보물 398호)이다. 이 한글활자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연대를 알려주는 기록은 없지만, 이들 두 책이 편찬된 1447년(세종 29) 무렵에 주도된 것으로 짐작된다.

《석보상절(釋譜詳節)》은 다 아다시피 세종비 소헌왕후(1395~1446)의 명복을 빌기 위해 편찬된 것이다. 소헌왕후는 청송심씨인 심온(沈溫: 뒤에 영의정 지냄)의 딸로, 1408년(태종 8년) 14세 때 두살 연하의 세종(당시는 충녕군)과 결혼해 38년간 해로하며 8남2녀를 낳았다. 1446년 소헌왕후가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불심(佛心)이 깊었던 왕후의 명복을 빌고 대중을 불교에 귀의시키기 위해 수양대군(뒤의 세조) 등에게 석가모니의 가계와 일대기를 엮어 이를 한글로 번역하게 했다. 이것이 곧 《석보상절》이다.

이 책의 간행연대는 1447~1449년 사이로 추정되는데, '초주 갑인자'와 함께 한글 활자로 인쇄된 것이 특징이다. 모두 24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초간본은 현재 권6·9·13·19(이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와 권23·24(동국대도서관) 등 6책만이 전하는데, 불교학은 물론 국어학적으로도 15세기 중엽의 국어와 한자음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세종 자

세종비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부처님의 생애와 공덕을 기린 이들 두 책은 불교학이나 국어학적으로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특히 역사상 최초의 한글활자본이라는 데서 더욱 값지다.

《석보상절》 초간본 (보물 523호=위)과 《월인천강지곡》(보물 398호). 특히 후자는 한글을 크게 하고 그 밑에 작은 한자를 곁들인 국어우위의 표기방식이 눈길을 끈다.

신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1447년 수양대군 등이 지어 바친 《석보상절》을 받아본 세종이 손수 석가의 공덕을 칭송하여 읊은 찬불가(讚佛歌)가 곧 《월인천강지곡》인데, '월인천강'이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심이 달이 천강에 비침과 같다는 뜻이다.

이 책은 원래 상·중·하 3권으로 이뤄져 있으나 현재 온전히 전하는 것은 상권 1책(대한교과서 소장)뿐이다. 이나마도 어느 스님이 간직하고 있던 것이 1960년대 초 광주에서 진기홍(陳洪洪)씨의 눈에 띄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61년 12월 이 책을 영인, 2백부 한정판으로 간행했던 통문관의 이겸로(李謙魯)옹에 따르면, 동국대도서관장을 지냈던 우정상(禹貞相·작고)씨가 이 책의 상·중·하 전질을 소장



하고 있었는데 1·4후퇴 때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가던 도중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분실했다고 한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아직도 어디선가 그 책이 나타날 희망은 있는 셈이다.

이 책의 간행연대나 인쇄활자는 《석보상절》과 같으나, 한가지 특기할 것은 《월인천강지곡》은 여느 국역본과는 달리 우리말을 큰 활자로 먼저 표기하고 그 밑에 작은 활자로 한자를 곁들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형식은 조선조 5백년간에 이 책이 유일한 예라고 한다. 어쨌든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함께 가장 오래된 국문 장편서사시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책은 여러모로 보아 마땅히 '국보'로 승격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W)

출판저널

통권 제214호 / 1997년 5월 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좋은 느낌

빈/칸/만/들/기

일러스트레이션
 만화기획
 캐릭터 개발
 출판사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66-56 대동빌딩 302호
 전화 838-4350 팩스 838-4350
 핸드폰 011-769-4350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합철본을 제작, 한층 자료 가치가 높아진 합본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합본호 판매안내

- 합본1호 (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 (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 (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 (날권31~40호) 5,000원(·)
- 합본5호 (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 (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 (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 (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 (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 (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 구독에 불편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전화·서신 등을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본호 구입시 우송료는 수취인 부담이므로 본사를 직접 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

*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

출판저널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
 40,000원
 * 반년분(11호)
 22,000원